

---

#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

2024. 9.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 목 차 ||

I. 조사개요 .....	1
1. 조사목적 .....	1
2. 조사대상 기간 .....	1
3. 조사실시 기간 .....	1
4. 조사대상 .....	1
5. 조사방법 .....	1
6. 조사항목 .....	1
7. 집계방법 .....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1
II.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	2
1. 종합 경기전망 .....	2
2. 응답업체 분포 .....	3
3. 항목별 경기전망 .....	3
4. 업종별 경기전망 .....	4
5. 규모별 경기전망 .....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5
7. 지역별 경기전망 .....	6
8.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 .....	7
9. 2024년 4/4분기 대내외 리스크 .....	8

# I

## 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 2. 조사대상 기간

- 2024년 3/4분기(7, 8, 9월) - 실적기간
- 2024년 4/4분기(10, 11, 12월) - 전망기간

### 3. 조사실시 기간

- 2024년 8월 21일 ~ 2024년 9월 2 일

###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10개 업체로부터 회수

###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자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8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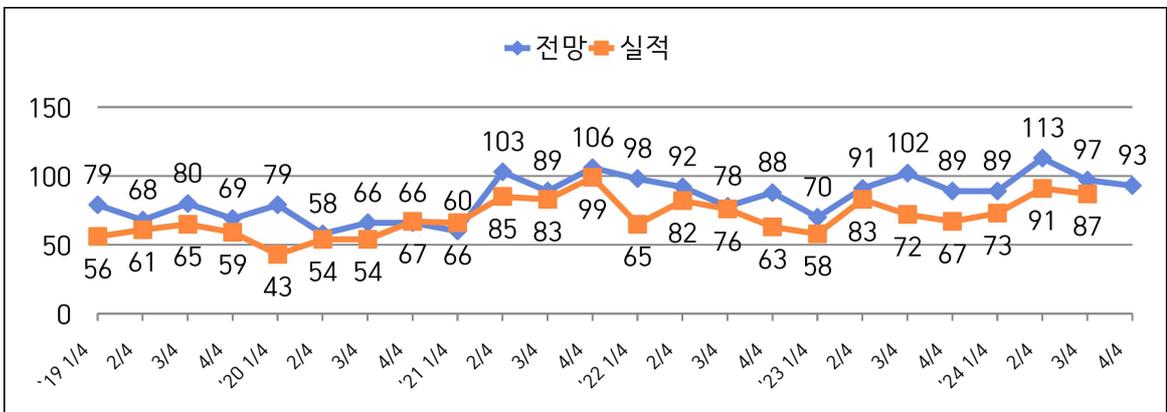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 1. 종합 경기전망

4/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BSI '93', 2분기 연속 경기 전망 하락

-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의 2024년 4분기 경기 전망은 내수 부진의 장기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10개 제조업체에서 응답한 「2024년 4/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usiness Survey Index)는 '93'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한 것으로 조사됨.
- 올해 초 계획한 실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55.4%가 내수 부진의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요인에 의한 기업 성장 둔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처럼 4분기 기업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책 당국은 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 회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 【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치	79	68	80	69	79	58	66	66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b>93</b>
실적치	56	61	65	59	43	54	54	67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

###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4/4분기 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8.2%(42개사)로 가장 많았음.
-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악화될 것’이라는 업체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31개사→38개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4년 3/4분기 전망	2024년 4/4분기 전망
호 전	23.3%(27개사)	27.3%(30개사)
비 슷	50.0%(58개사)	38.2%(42개사)
악 화	26.7%(31개사)	34.5%(38개사)
계	100.0%(116개사)	100.0%(110개사)

※ ( )는 응답업체 수

###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을 보면 매출액(95), 영업이익(93), 설비투자(96), 자금사정(90)에서 모든 항목의 전망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고금리 기조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반영되어 자금사정 지수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024년 4/4분기 부진이 예상됨.

#### 【 2024년 4/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설 비 투 자	자 금 사 정
BSI	95 (88)	93 (89)	96 (95)	90 (85)

※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4. 업종별 경기전망

- 전기전자(133), 자동차부품(133), 금속기계(100) 관련 제조업의 경우 4분기 업종별 경기전망이 기준치를 상회하여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섬유 의복(90), 화학(84), 비금속(71), 바이오농식품(67)의 경우는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 2024년 4/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바이오농식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 타
BSI	67 (100)	90 (60)	84 (104)	71 (43)	100 (52)	133 (100)	133 (100)	80 (120)

※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전기전자(133)는 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등 동절기 제품 수요와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매출 상승이 예상되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 자동차 부품(133)은 완성차 업체의 수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생산량 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화학(84) 업종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제품가격 하락 압박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사됨.
- 비금속(71)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민간주택 및 공공부문 건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주액 감소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예상됨.
- 바이오농식품(67)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신선식품의 계절적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동종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함.

## 5. 규모별 경기전망

- 2024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대·중견기업(85)과 중소기업(97) 모두 기준치(100)을 하회하며 모든 경영항목의 전망치가 감소로 체감경기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고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 2024년 4/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85 (94)	97 (81)

※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도내 수출기업(94)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국제 유가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도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수기업(93)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4p에 이르는 고물가가 지속되며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음. 또한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도내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체감경기가 기준치(100)을 밑도는 93으로 조사됨.

### 【 2024년 4/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94 (67)	93 (88)

※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7. 지역별 경기전망

- 군산(111)과 전주(100) 지역은 기준치 ‘100’ 을 상회하여 경기 전망을 ‘호전’ 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전북서남(90)과 익산(55)은 기준치 ‘100’ 을 크게 밑돌아 4분기 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함.
- 군산(111) 지역의 경기 전망치가 높게 조사된 이유는 새만금에 대한 투자 가시화와 전기전자 업종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와 수출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익산(55) 지역은 섬유, 화학, 바이오농식품 분야의 동종업계 경쟁 심화로 인해 판매 단가 하락 압박, 수출 감소,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치가 가장 낮게 조사됨. 또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이 전망치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 2024년 4/4분기 지역별 B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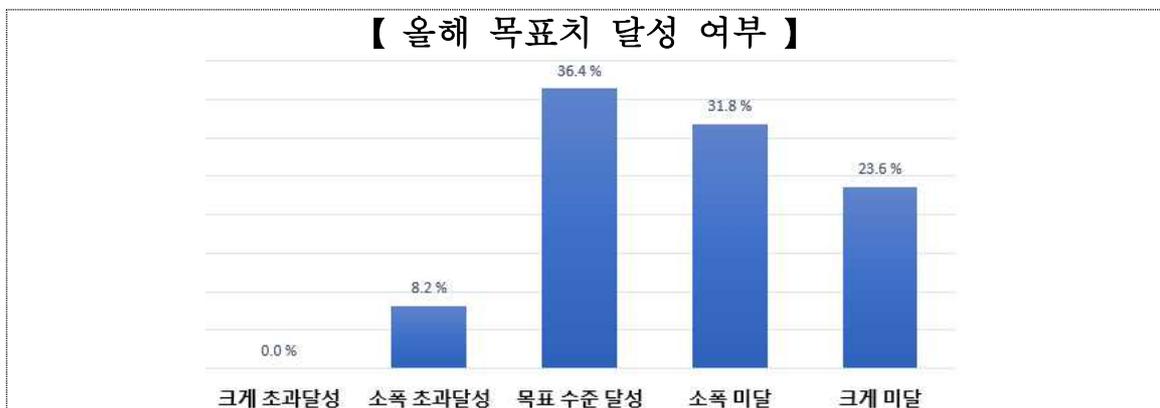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분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BSI	100 (84)	55 (75)	111 (84)	90 (100)

※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8. 올해 영업이익 실적 목표 달성 여부

- 연초에 계획했던 영업이익 실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응답 기업 중 55.4%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답변한 가운데 ‘소폭 미달’ 이 31.8%, ‘크게 미달’ 은 23.6%로 조사되어 현재 기업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대변하고 있음. 한편 ‘목표 수준 달성’ 이 36.4%, ‘소폭 초과 달성’ 은 8.2%로 응답하였으며, ‘크게 초과 달성’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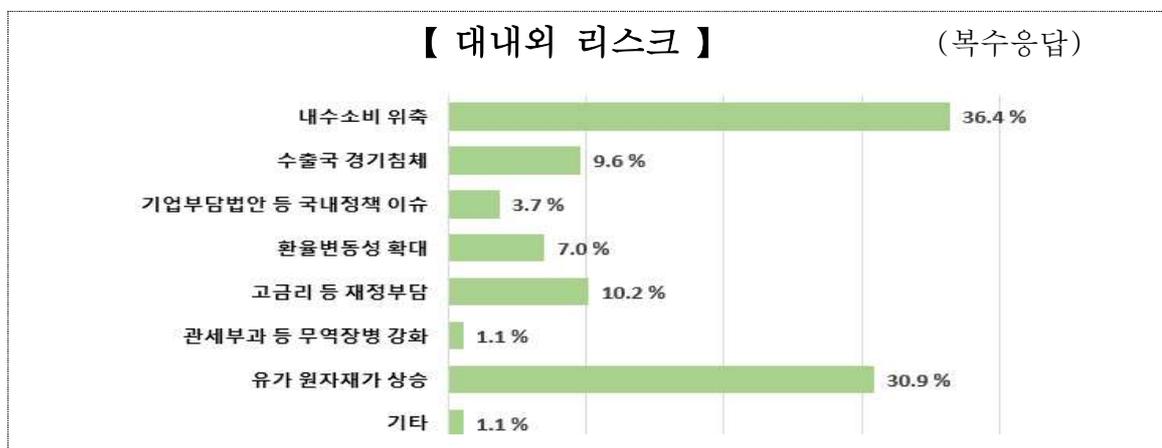
- 2024년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익산은 ‘크게 미달(36.8%)’, ‘소폭 미달(31.6%)’로 집계되며 익산 조사기업의 68.4%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군산은 ‘목표 수준 달성(47.4%)’, ‘소폭 초과 달성(15.8%)’으로 총 군산 응답 기업의 63.1%가 목표 수준을 달성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요구됨.

**【 지역별 】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

지 역	크게 미달	소폭 미달	목표 수준 달성	소폭 초과 달성	크게 초과 달성
전주	24.0%	34.0%	34.0%	8.0%	-
익산	36.8%	31.6%	26.3%	5.3%	-
군산	-	36.8%	47.4%	15.8%	-
전북서남	27.3%	27.3%	40.9%	4.5%	-

**9. 4/4분기 사업 실적 대내외 리스크**

- 4/4분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내수 소비 위축(36.4%)’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30.9%)’, ‘고금리 등 재정부담(10.2%)’, ‘수출국 경기침체(9.6%)’, ‘환율변동성 확대(7.0%)’, ‘기업 부담법안 등 국내정책 이슈(3.7%)’,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1.1%)’ 순으로 응답하여 정책 당국의 내수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조사 결과 모든 업종이 4/4분기 사업실적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바이오농식품 업종은 42.1%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음. 따라서 정부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함.

**【 업종별 】 4/4분기 사업실적 대내외 리스크**

업종	내수소비 위축	수출국 경기침체	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 이슈	환율변동성 확대
바이오농식품	42.1%	10.5%	5.3%	2.6%
섬유의복	33.3%	26.7%	-	-
화학	36.6%	9.8%	4.9%	12.2%
비금속	35.7%	-	-	7.1%
금속·기계	38.9%	8.3%	5.6%	8.3%
전기·전자	29.4%	11.8%	-	-
자동차부품	31.6%	-	5.3%	15.8%
기타	40.0%	40.0%	-	-

업종	고금리 등 재정부담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	유가 원자재가 상승	기타
바이오농식품	5.3%	2.6%	31.6%	-
섬유의복	6.7%	-	20.0%	13.3%
화학	2.4%	-	34.1%	-
비금속	14.3%	-	42.9%	-
금속·기계	11.1%	2.8%	25.0%	-
전기·전자	15.8%	-	31.6%	-
자동차부품	25.3%	-	-	-
기타	-	-	20.0%	-